

혁신위 “현역의원 20% 물갈이” 새정치, 총선 공천전쟁 시작됐다

5개 항목 ‘교체지수’ 평가, 당내 반발 클 듯...신당 움직임도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뇌관’으로 꼽히는 공천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공천혁신안에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새정치연합 내부 갈등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당 창당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공천 자체에서 배제 당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도덕성 문제나 부패 혐의로 재판에 연루된 경우, 막말 해당 행위 등으로 인해 공직선거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경선에서 탈락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고려하면 전체 교체 비율은 최소 3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혁신위는 이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당의 정체성을 해친 해당 행위자들에게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계파와 기

득권을 뛰어넘는 선당후사, 백의중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20%는 기본 배제 비율일 뿐 이후 공천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단계별로 배제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평가를 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의 위원장 포함 15인 위원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 위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하며, 중간평

가 30%, 최종평가 70% 비율로 반영된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공천개혁안을 20일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향후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공천안, 경선 방식에 대한 공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이 제시됨에 따라 호남 정치권도 본격적인 공천전쟁이 시작된 분위기다.
당장, 호남 국회의원들은 혁신안에 따른 공천 유희를 계산하는 한편 추후 제시될 공천 혁신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남 국회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 새정치, 현역의원 평가 항목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 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 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

※ 비례대표는 의정활동·다면평가

공천 전쟁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천 혁신의 태풍을 마주하고 있는 데다 외부적으로는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는 성년 민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당 창당의 후폭풍과 선거구 확정 등에 따른 지역구 지형 변화 가능성도 높은 현실이어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공천혁신안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선거구 확정안 마련이 지연되면 지역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부적으로는 공천 혁신에, 외부적으로는 신당 창당이 맞물려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식 12월 초로 연기 방선규 전당장 “세부조율 때문 불가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식 기념식이 12월 초순으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2면>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11월25일로 예정됐던 공식 개관기념식을 12월 초순으로 연기해야 될 것 같다”며 “문화전당 개관을 위한 세부조율 작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 정부의 약속대로 문화전당은 오는 9월4일 문을 열어 개관축제를 개최, 일부 콘텐츠(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추진단이 개관 기념식을 문화전당 개관일 보다 3개월 정도 늦춰 잡은 것은 문화전당 설립의 모태가 되는 상징적 공간인 광주광역시 보존공간(옛 전남도청, 경찰청) 콘텐츠 구축 일정이 늦춰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전당장 직무대리는 예술극장에 다소 난해한 공연물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 “전당의 기획공연이 없는 시기에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열 계획”이라며 “이러한 지역민과 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중적인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부지에 세워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어린이문화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 등 5개 시설로 이뤄진 복합 문화공간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병해충 야간 공동방제 광주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 직원들이 농약방제 차량을 이용해 지난 18일 밤 남구 화장동 들녘에서 병해충 공동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제작업은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하루 평균 20ha 면적에서 이뤄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농업, FTA 피해 年 2000억...국제경쟁력 높여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전남지역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년간 누적 피해액도 3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비롯해 발차물 경영체와 식품의식산업, 정예농업인력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전남도는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의 종합적인 영향분

석과 중장기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자체 농업시뮬레이션모형(KAS-MO)을 통해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를 기본으로 해 FTA가 발효될 경우의

연차별(20년) 전망치를 비교해 산출한 결과 전남의 경우 연간 2069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1조1368억원) 감소 생산액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다. 15년 누적피해액 추정치는 3조1039억원(전국 17조522억원)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전남의 농업·농촌과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첨단 수출원예전문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재구조, 발농업 경쟁력 강화, 들

녘경영체 확대, 외식산업 육성, 정예농업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 시책 추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또 대학교수, 전남도의회 김호남 농수산위원장과 김성일 FTA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용역(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비롯해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전남 미래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복 70주년 유라시아 대장정 블라디보스토크 ▶18면
김국영 9초대 한국新 쓴다 ▶20면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목) 문의 (062) 605-1114

8/21 "GRAND OPEN"

빛가람도시 최종심! 호수조망 한정판!

탁트인 개방감의 6m 광폭거실과 격이 다른 인테리어까지, 청담동 고급저택의 품격이 중소형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EG the 1** 이 만들면 다릅니다.

경품 추첨 이벤트!
8월 21일(수)~23일(금) 추첨(8월 20일(화) 오후 4시)
1등 루이비통가방 1명
2등 43인치 TV 2명
3등 제습기 5명
4등 자전거 10명
5등 선풍기 20명
평민고객 사은품 증정(라면) 1인당 100명 (총 100)

중도금 60%무이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호수조망 premium
52만㎡ 호수공원을 내집 정원처럼 누리다!

공간혁신 premium
호텔 같은 아파트! 중대형 같은 중소형에 살다!

교육특권 premium
유치원 초·중·고 걸어서 모두 누리며 교육 라인업!

여성특화 premium
중선과 감각, 위함까지 여자를 세밀하게 연구하다!

광주 계림2구역 대규모 재개발사업 확정!

2015년 총 1800여 세대 분양예정!!

문의 062) 368-8833